



WWF

KOREA



2022 ANNUAL REPORT

연간보고서 2022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3,500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간 정보

제목: WWF-Korea 연간보고서 2022

발행인: 홍윤희

발행처: WWF-Korea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발행일: 2022년 12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Shutterstock / DES82 / WWF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WWF-Korea 연간보고서 2022

© Text and graphics 2022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 Clay Bolt / WWF-US

목차

| | |
|-----------------------|----|
| 인사말 | 2 |
| WWF 소개 | 4 |
| WWF 주요 보전 활동 | |
| – 기후 · 에너지 | 8 |
| – 지속가능 금융 | 12 |
| – 해양 | 14 |
| – 담수 | 18 |
| – 글로벌 보전 활동 지원 | 20 |
| – 시장변화: 플라스틱 | 22 |
| – 시장변화: 팜유 | 26 |
| – 기업 파트너십 | 36 |
| 지구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 | 42 |
| 함께 만드는 변화 | 50 |
| 회계보고 | 54 |
| WWF 네트워크 | 56 |

우리의 선택에 달린 지구와 인류의 미래



WWF-Korea
이사장
홍정욱

지난 7월 유엔총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접근할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선언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연 파괴는 모든 형태의 인권을 누리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사회는 자연 보전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WWF의 목표와도 닿아 있습니다. WWF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류를 위한 WWF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복잡하고 험난합니다. 지구 생태계의 숲, 해양, 담수, 식량, 기후, 야생동물 등 많은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물망처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WF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인류가 처한 자연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기는 기후 변화, 식량 안보, 물 부족, 감염병 등을 초래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인류가 겪는 위기는 야생동물 불법거래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촉발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로 인해 위협을 받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도 바

로 인류입니다. 우리는 현재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생산과 소비로 지구 한계 이상의 자원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 기온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인류입니다. 지구를 공유하고있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이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WWF의 슬로건 'Together Possible'처럼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WWF-Korea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세기 이상 축적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한국의 발자취와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 자연 보전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네이처 포지티브' 미래



WWF-Korea
사무총장
홍윤희

WWF의 대표 연구 보고서인 「2022년 지구생명보고서」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자연이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69% 감소했습니다. 식량 생산, 인프라 구축 등 개발을 위한 서식지 파괴,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생산을 위한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환경 오염 등 모든 인간 활동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한계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생물다양성은 자연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구생명지수 69% 감소는 생물다양성이 광범위하게 감소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절반 가량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가 심각해질수록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 또한 사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류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추고,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자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량과 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

다. 자연을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습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50년 넷제로(Net-zero) 목표를 달성하는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합의안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기업은 생산, 유통, 소비 및 사용 후 등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소비자이자 유권자로서 기업과 정부에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이처 포지티브' 세상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무조건 이루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WWF-Korea와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소개

WWF의 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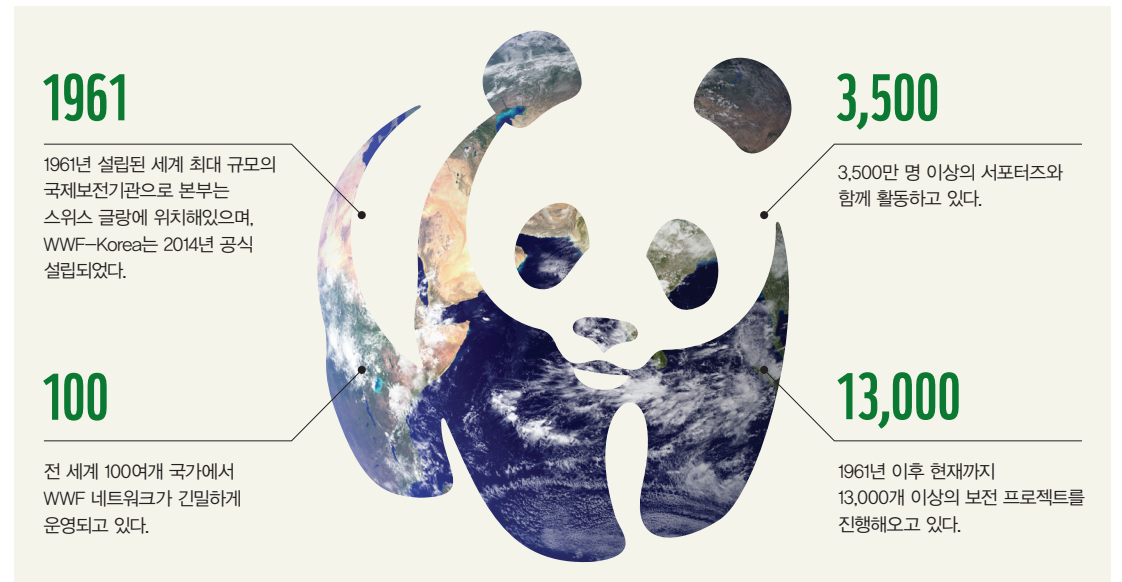
WWF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의 이중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

| | By 2030 | By 2050 |
|----------|---|-------------------------------|
| 생물다양성 회복 |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반전시켜 순감(Net-loss) 제로 상태 달성 | 생물다양성이 회복하여 자연과 사람 모두 번영하는 상태 |
| 기후위기 해결 |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달성 | 탄소중립(Net-Zero) 달성 |

WWF는 6개의 보전 목표와 보전 활동을 가속화하는 3개의 동력 부문을 두고 있다



숫자로 보는 WWF





© Rex Lu / WWF

WWF 주요 보전 활동 CONSERVATION IMPACTS

기후 · 에너지
지속가능 금융
해양
담수
글로벌 보전 활동 지원
시장변화1: 플라스틱
시장변화2: 팜유
기업 파트너십

기후·에너지(CLIMATE&ENERGY)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활동 배경 및 목표

2022년 전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자연 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인류와 자연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가량 감축해야 한다.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모든 참여 국가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고 더 명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WWF는 한국이 파리협정에 따른 1.5도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WWF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위기 및 에너지 이슈에 대해 소통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플랫폼을 제공한다. 국내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여러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연보전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 나아가 WWF는 한국의 환경에 맞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목표

- 1
기후위기 대응 방안 제시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 제공
- 2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제공
- 3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개발 지원



주요 활동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활동

SBTi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과학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게 하여 기업 스스로 기후 대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WWF와 CDP(탄소

공개프로젝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WRI(세계자원연구소)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1,700개 이상의 기업이 SBTi 참여를 선언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700여 개의 기업이 목표를 수립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30개 기업만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로 한국 기업의 더욱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WWF는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SBTi 목표 수립 방법과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 SBTi 참여 방법 | |
|------------|-------------------|
| 1단계 | SBT 수립 약속 및 선언 |
| 2단계 | SBT 목표 수립 후 검증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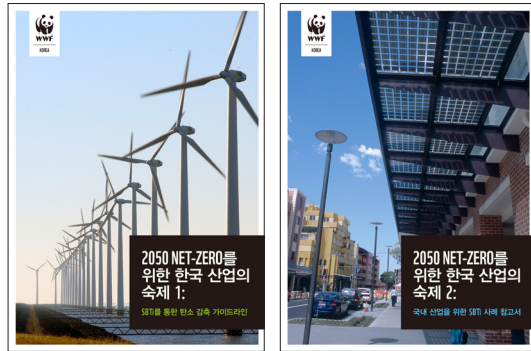


© McDonald Mirabile / WWF-US

산업계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돕는 연구 보고서 발간

WWF는 한국 산업계의 탈탄소 및 친환경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로 「2050 Net-Zero를 위한 한국 산업의 속제 1(부제: SBTi를 통한 탄소 감축 가이드라인)」과 「2050 Net-Zero를 위한 한국 산업의 속제 2(부제: 국내 산업을 위한 SBTi 사례 참고서)」 2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산업계의 탄소 감축 노력 및 기후행동 현황 분석, 해외 모범 사례를 통한 한국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다양한 실제 사례와 가이드라인 제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WWF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강조하고, 기업과 협력해 우리 사회의 기후행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후행동 컨퍼런스(Climate Action Conference: CAC)

2022년 3월, 파리협정 1.5도 목표 및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행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기후행동 컨퍼런스는 거버넌스, 시장, 금융 측면의 글로벌 리더십을 알아보고 한국의 기후행동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기후 위기 시대의 저탄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Climate Action Round-Table: C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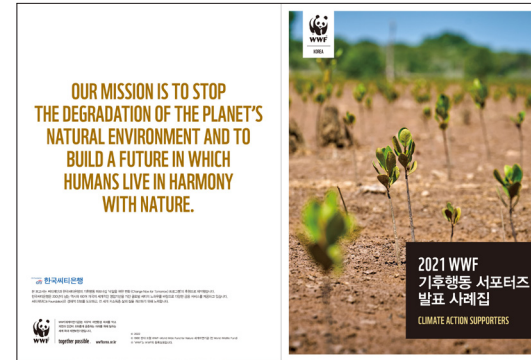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해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2022년 1월 개최한 제7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 할 단계에 대해 다루었다. WWF는 국내 기후행동 방안을 설명하고, SBTi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 산업계의 SBTi 참여 방안과 해외 적용 사례,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다. 기업의 탄소 감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 사례들도 소개됐다.



소 경제 전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대응사례, 정책, 전략 등을 소개했다. 또, 저탄소 경제 및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고, 해외 선진 사례 소개를 통해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기후행동 서포터즈 (Climate Action Supporters)

기후행동 서포터즈는 청년층의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20여 명이 참여했고,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자연보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서포터즈 참가자들은 WWF의 글로벌 목표를 주제로 조별 연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저탄소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WWF는 계속해서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분야 리더들을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자연보전 전반에 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CoREi) 활동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는 2020년 6월 발족한 이후 세계적인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총 다섯 차례의 모임을 진행했고, 기업,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했다. 산업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조달 및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브리핑,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내용 및 진행사항 등을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 업체도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 (COP26) 의장인 알록 샤마(Alok Sharma)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기업들에게 알리고, ESG 기후 전략 및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도 참여해 부대 이벤트로 CoREi 워크숍을 진행했다. WWF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임직원 교육 행사

WWF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임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WWF 홍보대사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환경연구원 홍재우 박사는 기후위기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자연과 예술을 접목해 다양한 시각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듀오 방앤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세계 경제와 금융은 자연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금융의 흐름이 자연을 보전하는 길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활동 배경 및 목표

경제는 기후, 토양, 공기, 물, 동식물 등 자연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하고 본연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자본은 식량, 기후 조절, 자연 재해 방지 등 귀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WWF는 자연자본의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크지만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은 자금공여자로서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지만 WWF는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분류체계(EU Taxonomy) 개발 지원,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방법론 개발, 지속가능 해양 경제금융 이니셔티브 (Sustainable Blue Economy Finance Initiative)의 주요 원칙 수립 등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톨과 방법

론들을 제시해 왔다. WWF-Korea는 국내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활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목표

- 1

Greening Finance: 금융시스템에 기후·환경 요인 통합
- 2

Financing Green: 자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환경·사회·경제 분야로 유도
- 3

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촉구

활동 내용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지원

WWF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SBTi를 운영하고 있다. SBTi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투자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이러한 노력으로 자금

흐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기업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바뀔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의 리스크를 관리·통제 할 수 있게 된다. WWF는 금융기관이 SBTi 목표를 수립하고, 자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유도하도록 금융기관, 중앙은행,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은행들의 ESG통합 성과 평가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금융 활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SUSBA (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평가가 있다. SUSBA는 은행이 경영에 ESG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로 목적, 정책, 절차, 임직원,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6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과 지표는 은행이 전체 조직에 ESG를 통합하기 위한 주요 단계를 제시하는 로드맵이다. 6개의 주요 부문은 다음을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은행의 높은 수준의 성명과 목표 설정**
- **주요 ESG 리스크에 대한 입장 및 그 관리에 있어서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대 사항**
- **고객 및 거래에 대한 승인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ESG를 통합하는 방식**
- **임직원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 팀, 교육 및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부**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특정 상품을 제공하고 녹색금융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 **ESG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수준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 여부**

WWF-Korea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 은행을 평가하는 SUSBA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0년 최초 발간 이후 2021년 국내 은행들의 ESG 통합 성과가 대폭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의 평점은 유럽 등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WWF는 앞으로도 국내 은행들의 지속가능금융 도입 확대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제언 활동

세계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자연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안정적인 기후와 생태 환경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기록적인 이상기후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이러한 근간을 흔들며 실물 경제는 물론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C 상승하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1%, 3.2°C 상승할 경우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연간 2조 7천억 달러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WWF는 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주요 임무로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GFR(Greening Financial Regulatory Initiative)가 있다. GFR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이 보다 강화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기술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G20, G7, 유엔 당사국총회(COP) 등 주요 국제 정상 회의에 맞춰 목소리를 높였다.

WWF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ESG요인 정책 통합 여부를 평가하는 SUSREG(Sustainable Financial Regulations and Central Bank Activities) 보고서도 매년 발간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평가 대상이다. 2021년 평가 결과,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 입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WWF는 SUSREG와 GFR 활동을 통해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WWF는 PAI(Portfolio Alignment Initiative)를 통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가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녹색분류체계(Taxonomy),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 필요한 기준을 만들고, 금융기관이 투자를 결정할 때 녹색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해양(OCEANS)

“우리가 속한 자연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 naturepl.com / Pete Oxford / WWF

활동 배경 및 목표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극지방의 동식물은 서식지를 잃었고, 지역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입었다. 해빙이 물 순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태풍, 해일, 장마 등 이상기후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지구의 70%에 해당하는 해양이 무너지면 지구 시스템도 온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WWF는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제3자 인증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보전이 필요한 해양 생태계와 지역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표

- 1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
- 2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식 증진
- 3 해양 쓰레기 수거 및 방지를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 내용

WWF-Korea 해양 홈페이지 개설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한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홈페이지에는 WWF의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활동,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정보, 해양 생태계 정보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양식 사업, 불법 어업, 해

양 멸종위기종, 남극해 등 현재 관심이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바다에 관심이 있는 개인, 기업, 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양어선 전자조업 모니터링 시스템 EM(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

바다는 우리에게 풍부한 수산물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 세계 수산물의 12~30%가 불법적으로 어획, 생산, 유통되고 있다.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고갈과 같은 환경 문제와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전세계적인 수산자원 감소와 연안국 어업료 상승 등이 원양어선의 조업 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발생하고 있다.

WWF는 불법 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구축을 위해 전자조업모니터링(EM)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 정부 및 원양어업 관계자 등과 함께 원양어선 전자조업모니터링 시스템을 약 6개월간 한국 참치 연승어선에 시범적으로 부착했다. 이후 첫발을 댄 만큼 시범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 및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자 인식 조사

인간은 다양한 수산자원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바다로부터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적인 수산자원 확보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계 수산물의 여획량은 반세기 동안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고갈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수산물 소비 형태, 해양 생태계 문제 인식도, 지속가능한 수산물 개념 인식도, 관련 교육 등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했다. 이번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천 방안, 교육 방법 등을 파악하여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 해변 정화 활동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라네즈와 함께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있는 청포대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지정해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5월에는 라네즈 임직원들과 함께 해변 정화 활동을 하고, 해양 보전 교육을 진행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환경 영향에 대해 알렸다. WWF와 라네즈 임직원 30여명은 몽산포 해변에서 출발해 달산포, 청포대 해변까지 플로깅을 하며 해안 쓰레기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어구 및 낚시대, 그물, 노끈, 비닐봉지, 폭죽 잔해 등 약 2.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WWF는 KB국민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력하여 '맑은바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평어장 주변에 침적된 폐어구 수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으로 바닷속에 침적되어 유령 어업을 유발하는 침적 폐어구를 수거하여 해양 생물 보호 및 어업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

유령어업이란 어업활동 중에 유실되거나 방치되어 바다를 유령처럼 떠도는 폐어구에 해양생물들이 걸려 어획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유실 및 방치된 폐어구, 즉 유령어구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해양 쓰레기의 약 10%를 차지한다. 유령어구는 물고기뿐 아니라 해양 포유류, 바다새, 바다거북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유령어업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연평어장에서 폐어구 수거를 진행했다. 약 2개월 간 90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수거된 폐그물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추곡 골대, 핸드폰 거치대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었다.



* 반려해변이란 1986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개발한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맞게 재해석한 제도이다.



담수(FRESHWATER)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위기의 방어선인 생명의 물”

활동 배경 및 목표

담수는 다양한 생태계의 터전이 된다. 육지와 바다의 온도 조절, 영양분과 미네랄 운반 및 오염 물질 정화 기능 등 자연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보전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인구 증가 및 소비 패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담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담수 생물종의 개체군 규모는 지난 반세기 동안 평균 83% 감소해 육상 및 해양 생물종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담수의 위기는 기업 활동의 생산성 및 이익을 저하, 원가 상승 등의 실제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위협은 점차 한 행정 구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유역 간 유기적으로 얽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WWF는 담수 보전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목표

- 1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기반 마련
- 2 아시아 삼각주 지역의 담수 생물다양성 보전
- 3 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및 전략 개발 지원



활동 내용

아시아 삼각주 회복 사업 지원

WWF는 아시아 주요 삼각주*의 보전과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아시아 삼각주 회복(Resilient Asian Deltas, RAD) 사업 운영을 지원했다. 4억명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고, 생물다양성이 집약되어 있는 아시아의 주요 삼각주는 경제,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RAD사업은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등에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삼각주 지역이 기후위기 등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자 한다. WWF는 이 사업을 통해 아시아 대륙의 가장 큰 6개의 삼각주 지역의 훼손 위험 요소를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 개발을 위해 재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BNS(Bankable Nature Solutions))를 만들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삼각주는 하천이 바다 또는 호수와 만나는 하구에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평평한 지형을 의미한다. 아시아 대륙 6개 주요 삼각주는 차오프라야(Chao Phraya), 갠지스-메그나-브라마푸트라(Ganges-Meghna-Brahmaputra), 인더스(Indus), 이라와디(Irrawaddy), 메콩(Mekong), 펄(Pearl) 지역에 있다.

물 환원 프로젝트

WWF와 코카-콜라는 2007년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수자원보호 프로그램 '물환원 프로젝트(Water Replenishment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7개의 수자원 유역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담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환원 프로젝트는 코카-콜라 제품에 들어가는 물과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물의 총량을 각 지역사회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프로젝트이다.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물환원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김해, 창원 등지의 낙동강 유역 인근 물 부족 지역에 저수지 준설, 수생식물 식재, 수로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수자원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함천의 기호2저수지와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인 본곡마을의 원두동 저수지 준설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 사업을 진행했다.



글로벌 보전 활동 지원 (GLOBAL CONSERVATION)

WWF-Korea는 전 지구에서 펼쳐지는 WWF의 다양한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이 높은 아시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불법거래 근절, 생태계 먹이 사슬에 큰 역할을 하는 주요 지표종 보호 등의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지역의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와 아시아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우선과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릴 만큼 생물다양성이 높은 메콩강 유역의 생물종 보전, 해양 생태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상어와 가오리 보전 이니셔티브, 한국을 경로로 하는 아시아 철새 보전 프로젝트에 각각 기금을 지원하면서 생물종 멸종 방지에 힘을 보탰다.

긴급 구호가 필요한 채해 현장에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호주 산불 지원에 이어 올해는 그리스/터키 산불 복구에도 WWF 터키 본부를 통해 구호 기금을 전달했다. WWF-Korea가 지원한 WWF 글로벌 보전 활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ntonio Busiello / WWF-US

생물종 멸종 방지를 위한 지원 1 - 상어 및 가오리 보전

멸종위험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어와 가오리 보전을 위한 회복 이니셔티브(Shark and Ray Recovery Initiative, SARRI)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상어와 가오리 서식지 보전을 위해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개체 수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기후 위험 평가 및 적응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WWF는 멸종 위협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파수꾼을 지키는 최초의 포괄적 접근법을 도입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해양 동물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자 한다.

생물종 멸종 방지를 위한 지원 2 - 아시아 철새 보전

WWF-Korea는 한국을 경유하는 철새 보전을 위해 아시아 철새 이니셔티브(Asian Flyways Initiative, AFI)에 동참해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습지 및 담수 지역의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보전 영역이 넓은 만큼 다양한 공공 기관 및 기업의 협력

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주요 철새 서식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도 플랫폼을 개발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 활동 지원

WWF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의 국경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벌어지는 야생동물 불법거래(WT, Illegal Wildlife Trading)를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거래는 국가 간 광범위하게 걸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기관,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WWF는 국제단체 TRAFFIC 및 Wildlife Justice Commission과 함께 관련 기관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WWF-Korea는 현장 활동가들의 교육과 기술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WWF는 야생동물 불법거래 중단 및 거래 시장을 폐쇄시켜 궁극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활동 방향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국경 통과 시 법 집행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가 간 통신 채널을 구축한다. △효과적인 행동에 필요한 정보, 기술 및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NGO 및 정부 간 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야생동물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다.

야생동물 불법거래를 막는 또 다른 방법으로 WWF는 야생동물의 온라인 불법거래와 거래의 자금흐름을 막기 위한 기관(Hub) 설립 프로젝트도 지원했다. 야생동물 불법거래는 생태계 그 자체를 파괴하면서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퍼뜨리며 자연과 인류 모두를 위협한다. 그럼에도 야생동물 거래 시장은 매년 70~230억 달러가 거래되는 전 세계 4번째로 큰 암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야생동물 제품의 약 72~90% 가량이 주로 바다를 통해 밀거래 된다.

WWF는 금융 중심지이자 해양 도시국가로 무역의 거점이 되는 홍콩에 Hub를 두고 효과적인 대응을 이어가고자 한다. WWF-Korea는 지난해 홍콩 Hub 설립을 지원한 이래로 앞으로도 해양을 통한 공급망 추적, 온라인을 통한 밀거래 범죄 및 자금 흐름 차단 등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WWF-Malaysia / Lau Ching Fong

시장 변화1: 플라스틱(PLASTIC)

“이제는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할 때”

활동 배경 및 목표

플라스틱은 지난 세기 동안 생산과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경제성으로 인해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증해왔다. 많은 연구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 특히 생태계 파괴나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험이 알려졌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WWF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자연파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No Plastic in Nature' 전략을 도출하고, 기업을 비롯해 각국 정부, 지역 사회, 시민들과 협력하고 있다.

WWF는 그 중에서도 생산자이자 해결 역량을 가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자 노력한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기업들의 공동 플라스틱 감축 선언인 PACT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간 5,12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WWF는 플라스틱 산업이 순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목표

- 1 기업의 PACT 가입을 통한 범분야적 협력 확대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 2 플라스틱의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 3 보고서 발간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교육
- 4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통한 생태계 보전

활동 내용

PACT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 연간 성과

PACT(Plastic ACTION)는 WWF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업 공동의 다자간 선언이다. 기업들의 공동 참여를 통해 제품 생산부터 디자인과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2021년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한국에서도 PACT 선언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시작했다. PACT는 초기 멤버 6개 기업의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11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기업들은 산업별 특성과 기업별 상황에 맞춰 각각의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매일유업, 밀레니엄 힐튼 호텔, 산수음료, 씨에이치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올가니카, 우리카드, 우아한형제들, 워커히 호텔, 총 9개 기업이 PACT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감축한 신재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5,120톤을 기록했다. 2022년 신규 기업으로는 LG 생활건강, 코오롱LSI·MOD가 PACT에 가입했다. WWF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생산을 더 많이 줄이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기업 확대 및 기업간 범분야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회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 진행

2021년 12월, 신규 PACT 가입 기업들과 PACT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초청하여 제2회 플라스틱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해외 선진 사례로 글로벌 제조사인 P&G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플라스틱 감축 활동에 대해 발표했고, 국내 기업 사례로 SKC에서 지속가능한 신소재 연구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기존 PACT 기업들은 그 동안의 감축 노력에 대해 공유하고, 신규 가입 기업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유로운 토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기업 행동 변화 촉구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 2차 회의(UNEA-5.2)에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조약 결의안이 175개 참여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구속력 있고 합의된 내용의 국제 조약이 없어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크게 효과적일 수 없었고 플라스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WWF는 국제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1,000개 이상의 시

민사회단체와 14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다. 코카콜라 컴퍼니, 스타벅스, 유니레버, H&M, 네슬레, 펄스코, 테스코 등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CJ제일제당, 매일유업, 클리오 등 국내 기업들도 서명에 참여해 국제 플라스틱 조약 체결을 촉구했다. WWF는 국제 조약의 구성과 세부 사항이 결정되는 2024년까지 계속해서 기업들과 협력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더플 캠페인 시즌3 진행

WWF와 코카-콜라가 함께 3년째 원더플(ONETHEPL) 캠페인을 진행했다. 원더플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투명 페트병을 씻은 후 분리배출을 하면, 수거 단계를 거쳐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자원 순환 경험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시즌 3에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수거가 중요한 이유와 플라스틱 자원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틀 투 보틀 (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과 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고, 소비자 수거 참여 활동도 실시했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imPACT funds 활동

임팩트 펀드(imPACT funds)는 WWF-Korea의 플라스틱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후원금으로 조성됐다. 교육, 인식 제고,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플라스틱 보전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해양 오염 보고서 발간

2022년 5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해양 생물종,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한계치를 넘어서는 경우 되돌리기 힘든 파괴적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와 같은 오염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는 것보다 발생 원인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WWF는 각국 정부들에게 위협에 처한 해양 생물들을 위한 국제 조약을 긴급히 논의하고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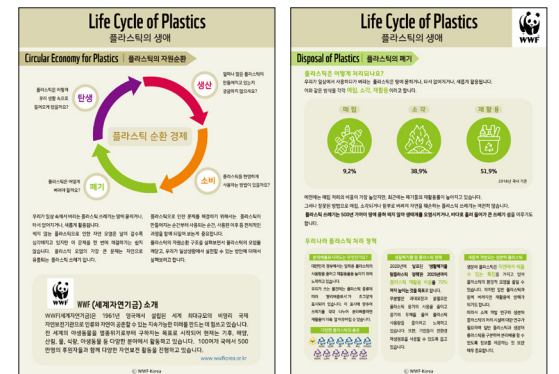
소재 추천 툴(AMT) 국문 버전 구축

대체 소재 추천 툴(AMT, Alternative Materials Tool)은 레스토랑, 호텔 및 서비스 산업 내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추천해 주는 온라인 툴이다.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주요 소재의 환경적 영향, 생애주기 정보 그리고 아시아 6개국의 국가별 폐기물 관리 통계를 활용해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소재를 추천한다. 환경 영향은 원료 추출, 제조 방식 및 포장물 사용할 국가의 폐기물 처리 통계(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비율)를 고려해 계산되었으며, 사용 목적은 포장 유형, 용량, 기능에 따라 평가된다. 국내 환경을 반영한 국문 버전 AMT가 구축 완료되면 기업은 물론 개인도 이 툴을 활용해 플라스틱 감축 실천에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종 국제청소년포럼 교육 참여

2021년 7월 '소중한 우리 지구(Our planet matters)'를 주제로 열린 세종 국제청소년포럼에서 WWF는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교육을 실시했다. 플라스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생산되며 소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 플라스틱의 생애주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행사장에서 WWF의 영상 자료를 공개하며 학생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시장 변화2: 팜유(PLAM OIL)

“팜유의 수요 증가로 열대우림이 광범위한 손실을 입고 있다.”

활동 배경 및 목표

피자와 라면, 초콜릿에서부터 삼푸, 탈취제, 분유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수많은 제품에 팜유가 들어있다. 팜유는 용도가 광범위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물성 기름’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전세계 팜유 생산량의 약 86%가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에서 생산된다. 열대우림 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 회복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팜유가 주로 생산되는 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팜유가 생산되면서 산림 파괴, 인권 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팜유는 경제성과 효율성, 범용성 등의 이점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팜유 산업을 만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WWF는 팜유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특히, 팜유의 공급망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매년 팜

유 바이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이행 시스템과 관행을 갖출 수 있는 기업 행동을 요구하며, 정책 제언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목표

- 1 ‘팜유 바이어 스코어카드 (Palm Oil Buyers Scorecard, POBS)’ 발간
- 2 지속가능한 팜유를 확대하는 인식 제고 활동
- 3 한국 팜유 시장조사를 통한 기초 데이터 확보



© Chris J Ratcliffe / WWF-UK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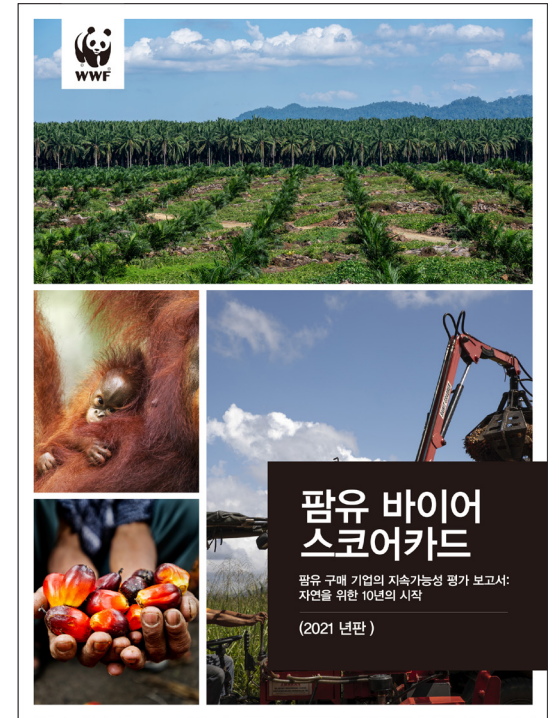
팜유 바이어 스코어카드(Palm Oil Buyers Scorecard, POBS) 2021 발간

WWF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팜유 바이어 스코어카드 (Palm Oil Buyers Scorecard, POBS)’를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POBS는 전세계 주요 유통사, 제조기업, 식음료 및 숙박 서비스 기업의 팜유 관련 정책을 다룬다.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을 위해 공표한 정책 선언의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산림훼손 및 생태계 전환, 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공개적 약속, 공급망 투명성, 인증 받은 지속가능한 팜유 사용량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기업들이 공개한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5개 대륙 227개 기업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 기업의 팜유 조달량이 증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국 기업 5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의 기업이 선언 이후 실질적 행동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절반 이상의 기업(52%)이 관련 다자간 협의체와 같은 지속가능성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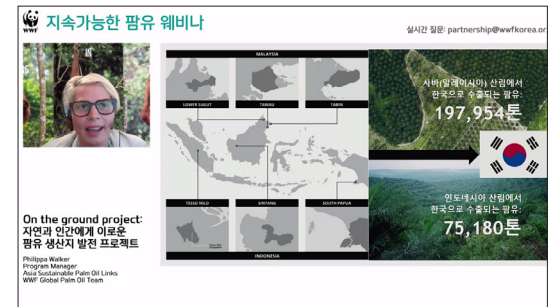
국내 기업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24점 만점에 14.5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삼양사, 롯데푸드, AK캠텍, 동남합성도 팜유 조달 정책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농심, 효성, LG생활건강, 대상, CJ제일제당, 미원상사, 오뚜기, SFC 등의 기업들은 WWF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높아지는 기준에 따

라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인증 받은 팜유의 사용량을 늘리고, 공급망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가능 팜유 온라인 세미나 개최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인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RSPO)와 함께 2021년 11월 지속가능한 팜유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팜유 바이어 스코어카드 2021에 한국 기업이 처음 포함된 의의와 시사점을 전달했다. 또, 한국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팜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차원의 수출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적용해야 할 핵심 정책과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



Asia Sustainable Palm Oil Link (ASPOL) 활동

ASPOL은 WWF가 지정하는 6개의 아시아 주요 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팜유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무역,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WWF의 올해 연구 결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팜유 시장의 주요 생산 및 소비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 시장으로 흘러가는 팜유의 무역 흐름을 밝혀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주요 보전지역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량의 팜유 수입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연관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팜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WWF는 한국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및 인증받은 지속가능한 팜유 사용 증가를 위한 제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팜유 소비자 인식 제고 활동

팜유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낯설 수 있지만 식품부터 화장품, 자동차 연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WWF는 '지속가능한 팜유'의 의미와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생태전환매거진 '바람과 물'과 공동 기획으로 팜유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커버스토리에는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이유와 팜유 산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자립준비청년 주경민 작가와 함께 무분별한 팜유 산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오랑우탄의 이야기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도 만화로 실었다. 만화를 통해 팜유 생산지에서 벌어지는 이슈가 우리 일상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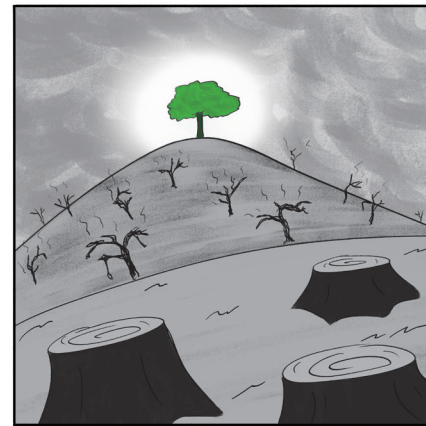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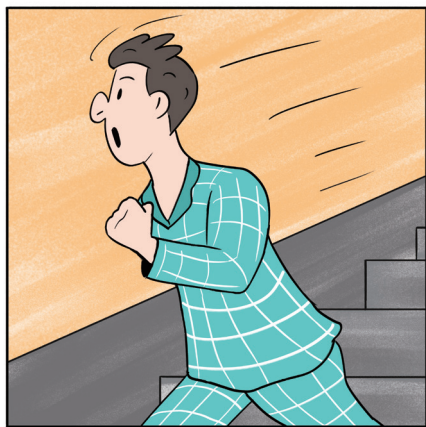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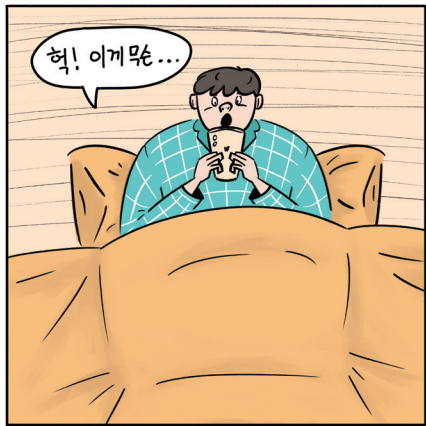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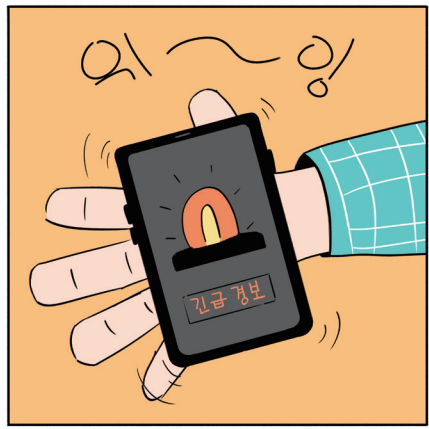


© James Morgan / WWF-International

팜유 카툰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WWF X 주경민 작가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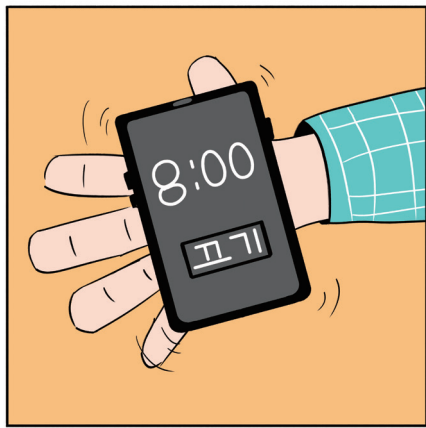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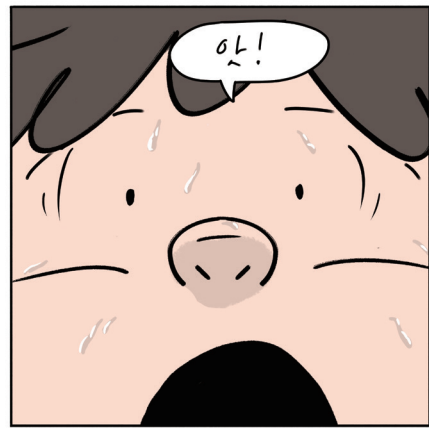
21



22



23



24



25



26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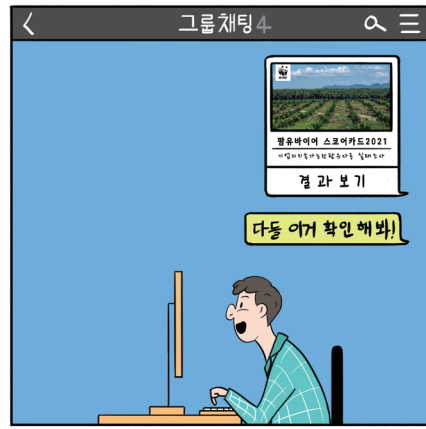
29



30



31



32



33



© Aaron Gekoski / WWF-US

기업 파트너십(CORPORATE PARTNERSHIP)

“기업의 변화는 우리의 미래와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활동 배경 및 목표

WWF는 지구의 자연자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기업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적인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과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기후를 비롯해 자연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금, 선도적으로 적응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은 자연과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와 경제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원 조달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의 생산과 소비, 재사용 및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의 디자인 변경 등 기업의 사업 내용과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WWF는 기업과 함께 산림 파괴와 물 부족, 자원 낭용, 기후위기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

목표

- 1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자연보전에 기여
- 2 인식 제고를 통한 소비자 행동 변화
- 3 기업 내부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



© Jason Houston / WWF-US

활동 내용

1) 기업의 운영 방식 변화

이마트와 지속가능한 상품의 기준 제시하는 PSI 보고서 발간

WWF와 이마트는 지속가능한 유통 산업을 위해 상품의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담은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PSI (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보고서를 발간했다. PSI는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보고서를 통해 우선 상품 원재료의 생산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제안했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는 제3자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원재료 소싱 로드맵'을 수립했다. 판매되는 상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지속가능하게 시작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포장에 대해 상품의 포장재를 점수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현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점점 강화되는 플라스틱 포장 규제에 유통사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모레퍼시픽과 플라스틱 감축 노력

WWF와 아모레퍼시픽은 '그린사이클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9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플라스틱 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 공병을 재생원료로 재생산하는 활동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77톤의 공병을 수거했고, 이 중 124톤을 용기 제작,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질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실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WWF의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인 PACT(Plastic ACTION)에 가입하여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파악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했다.

은하수산과 지속가능한 수산물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WWF와 은하수산은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 확대와 친환경 연근해 어업 전환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어업 현장, 유통, 소비자 구매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시장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은하수산은 자사가 유통하는 수산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MSC, ASC 등 지속가능 인증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단계별 목표 수립과 이행 계획을 선언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실시되는 연근해 어업과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수산물 이력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2) 소비자 인식 제고 활동

한국P&G와 판다토크 개최

WWF와 한국P&G는 2020년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폐기물 감축을 넘어 시스템 전환으로' 라는 주제로 판다토크를 열었다. 제품의 원료 수집부터 생산, 유통, 사용 후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성 강화 노력에 대해 공유했다. 홍윤희 WWF-Korea 사무총장을 비롯해 방송인 안현모, 디자이너 이옥선 등의 연사가 참여해 각 분야의 다양한 친환경 노력을 나누기도 했다.



순환경제 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금융그룹과 캠페인 및 교육 진행

우리금융그룹과 WWF는 2022년 3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대중 및 임직원 교육, 순환경제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3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세척,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별도로 수거,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Up-cycling) 화분을 만드는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

했다. 해당 캠페인으로 업사이클링된 화분은 참여 초등학교에 기부될 예정이다.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한 어린이 대상 교육 'WWF Classroom'에서는 자원절약과 자원순환, 재활용을 주제로 한 시청각 교육과 자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체험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3) 기업 임직원 교육

자연보전과 비즈니스 - 주식회사 이도 임직원 교육 진행

WWF는 주식회사 이도의 임직원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연보전과 비즈니스의 연관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이끌었다. 2022년 1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4월 신입 직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두 차례 교육을 통해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체이자 지속가능

한 변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주체로서의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자연 파괴로 인한 경제 손실과 소비자들이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깨닫는 현상인 'eco-wakening(에코-웨이킹)' 개념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은 환경뿐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 필수 전략임을 강조했다.

패션업에서의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 K2 임직원 교육

WWF는 올해 두 번의 K2 임직원 교육을 통해 패션산업에서의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교육에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인증 전문 기관인 '컨트롤유니온'에서 패션 산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을 소개했다. 두 번째 교육에서는 기업의 자연보전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지구:

기업의 역할 (Our Planet: Our Business)"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생산과 현명한 소비에 대해 전달했다. ESG 리서치 전문기업인 '퀀티파이드이에스지(QESG)'와 함께 패션업계가 기후위기에 주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
HIGHLIGHT MOMENTS

지구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 HIGHLIGHT MOMENTS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이자 유권자로서 기업과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WWF가 시민들과 함께 한 주요 캠페인을 소개한다.

호랑이의 해 캠페인 “늘어나는 야생 호랑이”

호랑이 개체 수 두 배 늘리는 TX2 캠페인

WWF는 야생 호랑이를 지키기 위해 단일 종 보전 활동으로 는 최대 규모인 TX2(호랑이 개체 수 두배 늘리기) 프로젝트를 12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호랑이의 해 당시, WWF는 전 세계에 약 32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야생 호랑이 개체수를 늘리고자 대대적인 보전 활동을 시작했다. 호랑이가 서식하는 13개 국가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불법포획 방지 등의 활동을 이어간 결과 올해

네팔, 부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호랑이 개체 수가 두 배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WWF는 2022년 연말까지 새로 집계한 야생 호랑이 총 개체수를 공개할 예정으로, 그 수가 약 5천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목표로 했던 두 배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호랑이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지게 된 것이다.



wwfkorea #호랑이의날 에 들려온 또 하나의 소식! 네팔의 호랑이들이 3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

WWF의 호랑이 개체수 2배 늘리기 'TX2(Tiger Times Two)'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네팔에서는 13년 만에 야생호랑이의 숫자가 35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

이번 사례로 국제적인 지원과 보전 프로그램으로 야생호랑이의 개체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돌아온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보전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WWF 호랑이 보전 활동 이야기는 📍 @wwfkorea 프로필 링크에서 '호랑이가 돌아왔다' 클릭!

#wwf #wwfkorea #세계자연기금 #7월29일 #국제호랑이의날 #호랑이 지키기 #멸종위기동물 #야생동물 #자연 #보전 #환경 #서식지 #말레이시아 #호랑이의해 #Wildlife #biodiversity #nature #tigers #Nepal #GlobalTigerDay #TX2 #YearoftheTiger

멸종위기종 보호와 자연의 소중함 알리는 특별 전시 개최

WWF-Korea는 2022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TX2 캠페인에 발맞춰 멸종위기 동물이 처한 현실과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를 열었다. 2022년 6월 '인간과 동물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세계관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는 현대 미술가 고상우 작가와 힘을 합쳤다.

'Forever Free - 그러므로 나는 동물이다'의 제목 아래 캠페인 아이콘 호랑이와 함께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을 담은 회

화, 디지털 아트, 드로잉 작품 등 236점을 선보였다. 아울러 WWF의 TX2 프로젝트 내용을 담은 WWF Zone을 통해 호랑이 보전 활동도 소개했다. 고상우 작가는 특유의 색감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평단과 대중의 이목을 동시에 끌고 있는 작가로 WWF의 후원자이자 파트너로 함께하게 됐다. WWF와 고상우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호랑이를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고민하고, 자연을 보전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어스아워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어스아워(Earth Hour) 한 시간 동안 전 세계 시민들이 소등에 참여했다. 이번 어스아워는 코로나19, 대규모 산불과 홍수와 같은 자연 파괴의 영향을 고스란히 겪으며 '우리의 집' 지구가 처한 위기를 되돌아보고,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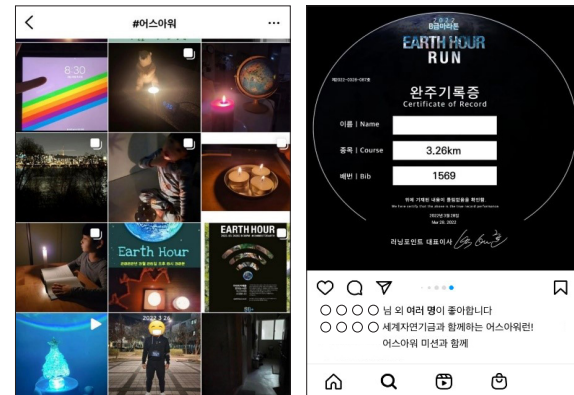
어스아워 하이라이트

이번 어스아워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전 세계 192개국 시민들이 어스아워에 동참했으며, 온라인에서 어스아워 관련 해시태그(#EarthHour)가 101억 건 이상 노출됐고, 35개 국가에서는 구글, 트위터 검색에서 실시간 트렌드로 오르기도 했다.

2007년 어스아워가 처음 시작된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베이징 피닉스 센터, 타이베이 101, 콜로세움, 에펠탑, 예수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포함한 세계적인 랜드마크도 소등에 참여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 국제 음악가이자 환경운동가 엘리 굴딩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사당, 서울시청, 남산서울타워, LG 트윈빌딩, 롯데월드타워, 광화문, 인천대교 포함 주요 랜드마크 및 기업, 공공기관 등 총 50 곳 이상이 소등에 참여했다. 어스아워 캠페인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약 1만 명이 소등에 함께한다는 약속을 했고, 인스타그램 어스아워 해시태그(#어스아워) 게시물이 약 8천 건 공유될 정도로 높은 참여를 보였다.

#어스아워 해시태그 인증 사진 게시물 어스아워런 완주 인증 게시물



© Esteban Vega La Rotta / WWF-Colombia

미래를 향해 함께 달리는 '어스아워런'

WWF-Korea에서는 '시간 소등'과 더불어 처음으로 온라인 비대면 달리기 '어스아워런'을 진행했다. 완주 인증 거리를 올해 어스아워 날짜와 소등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 (3.26km / 8.30km)를 활용해 대중들이 소등 외 추가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참가인원은 1천 명 한정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빠른 속도로 모집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 팟캐스트 '어스아워' 특집 방송

MZ세대가 가장 많이 듣는 교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앙일보 팟캐스트 '뜰뜰라(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와 어스아워 특집 방송을 함께 진행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소등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스아워를 소개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결고리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약 7만 2천 회의 재생 횟수를 기록했다.

MBC 앞 광장 조형물 소등 전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는 역사적 첫 걸음

유엔 환경총회(UNEA)가 2022년 3월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에 관한 첫 국제 협정의 토대를 만들게 됐다. 이번 결의안은 '해양 오염'에 국한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Markus Winkler / WWF Germany

WWF는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자연 파괴를 막는 No Plastic In Nature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전 세계 2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서명을 얻었으며, 1,0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14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이번 유엔총회에 전달해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WWF-Korea 홍보대사 박서준 배우도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서준 홍보대사는 본인의 유튜브 콘텐츠 매 편마다 #Stop Plastic Pollution 캠페인 포스터를 공유했다.

함께하면 위대한 실천
by WWF Korea x Park Seo Jun

#STOP PLASTIC POLLUTION

© Shutterstock / Gradient Background / Muzhik / WWF

#박서준 #레코르박스 #recordparks
[Track 47] 박서준 청춘MT 가는 날 / Park Seo Jun vlog

박서준 Record PARK's
2M subscribers

Subscribe

16K

Share

Download

함께하면 위대한 실천
by WWF Korea X Park Seo Jun

일회용 컵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 30년
오늘 하루만큼은 텀블러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NoPlasticInNature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 최대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입니다.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is the leading conservation organization working to stop the degradation of the planet's natural environment and help people live in harmony with nature.

#박서준 #레코르박스 #recordparks
[Track 44] 박서준과 함께 떠나는 런던 자전거 여행 / Park Seo Jun in London vlog 1

박서준 Record PARK's
2M subscribers

Subscribe

33K

Share

Download



**함께 만드는
변화**

TOGETHER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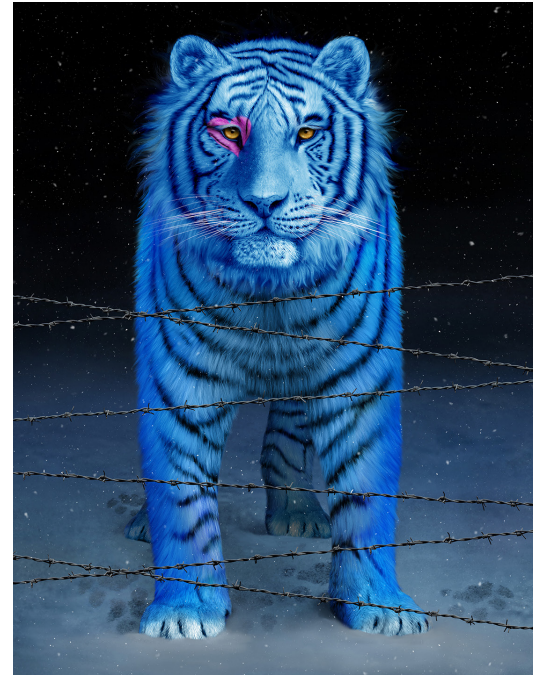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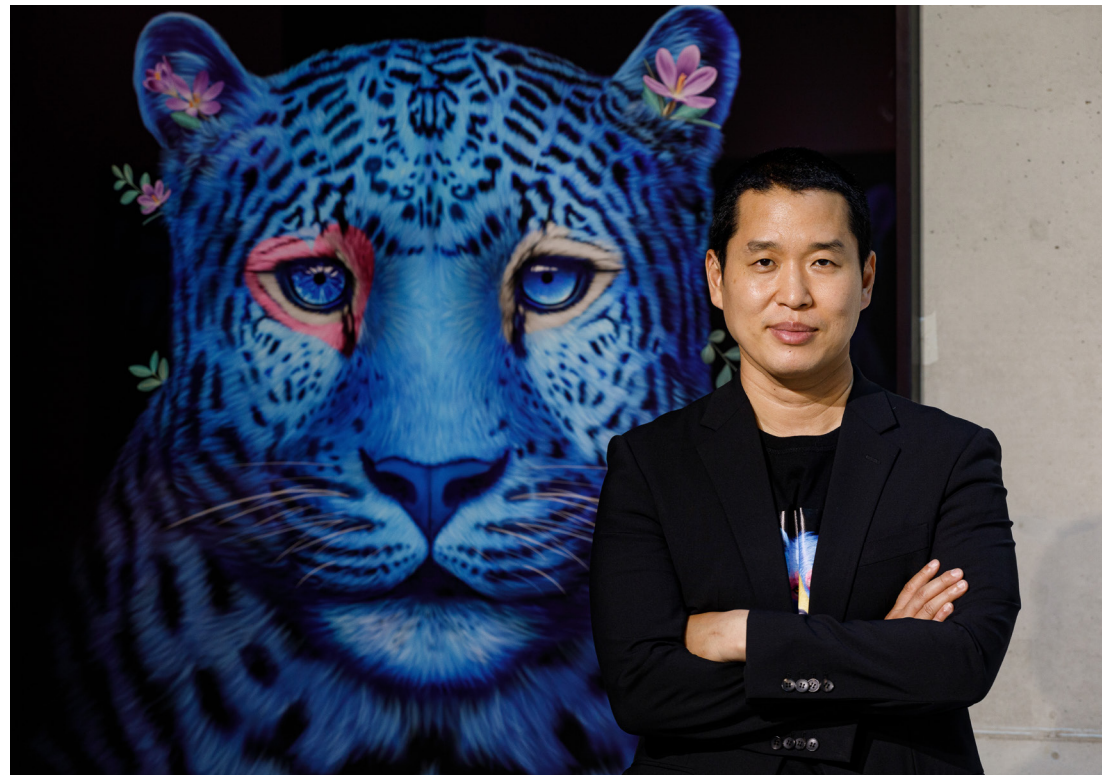
© naturepl.com / Bryan and Cherry Alexander / WWF

함께 만드는 변화 TOGETHER POSSIBLE

전 세계 6백만 명의 후원자들 모두의 바람은 하나일 것이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집' 지구를 지켜달라는 것. 한 해 동안 WWF에 보내온
응원과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후원자 분들에게 들었다.

고상우 작가

멸종위기 동물의 눈으로 자연보전 메시지를 전하는 아티스트



야생동물이 말을 거는 듯한 초상화로 잘 알려져 있다. 왜 동물, 그 중에서도 왜 멸종위기종을 그리는지 궁금하다.

작품 초기에는 소수자를 주로 대상으로 작품활동을 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러던 중 동물원에 가게 되면서 동물들과 눈동자 마주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우리는 총과 같이 없다”는 글을 쓰게 됐다. 동물은 최소한의 방어도 할 수 없는, 먹이사슬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느껴졌다. 결국 작품 활동을 하며 치유의 메시지, 공존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 우리는 결국 같이 살아야할 운명이니까.

WWF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특별 전시를 열었다. WWF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WWF 미국 본부 사무실에 방문할 갈 정도로 깊이 빠지게 됐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운명’이라는 전시를 열게 됐고, 그 수익금을 2021년 WWF 한국 본부에 기부했다. 이후 호랑이의 해를 맞아 멸종위기 동물이 처한 위협을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WWF와 아이디어를 모았고, 특별 전시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전시가 뉴스, SNS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WWF 후원자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작품과 그 이유는?

곧 2022년 호랑이의 해가 마무리된다.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더 의미를 되짚기 위해 <검은 별> 속 호랑이와 눈을 응시해보기를 권한다. DMZ 철창 너머 서 있는 호랑이의 모습은 한반도의 상황, 벼랑 끝에 몰린 호랑이, 자연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 등을 보여준다. 또, DMZ는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다.

WWF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전시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줬으면 하고, 저 역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할 생각이다. 작은 후원들이 모여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동계중고등학교 학생들

지구와의 공존을 꿈꾸는 설예니(고3), 박도한(고2) 학생



실제로 동계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나무 심기, 환경 공모전 도전 등의 다양한 환경 관련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어른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전하고 싶은지?

설: 이미 자연이 많이 파괴된 것 같아서 되돌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환경 오염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박: 학생들이 하는 사소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 오염을 규제할 수 있는 엄격한 정책이 있어야 많이 바뀌지 않을까?

동계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름으로 WWF에 기부했다. 두 학생이 대표로 후원자 인터뷰에 참여해줬는데, 어떻게 WWF에 기부하게 되었는지 사연이 궁금하다.

설: 교내 플라마켓에서 각 동아리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하게 됐다. 바리스타 동아리에서는 음료와 쿠키, 빵 등을 판매했고, 이모티콘 동아리에서는 굿즈를 제작해 판매했다. 공예 동아리에선 냄비받침이나 바구니, 뜨개질 동아리에선 목도리, 파우치, 가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평소 학교에서 하는 친환경 수업을 통해 관심을 두게 되었던 WWF에 기부하게 됐다.

학교에서 어떤 환경 관련 교육을 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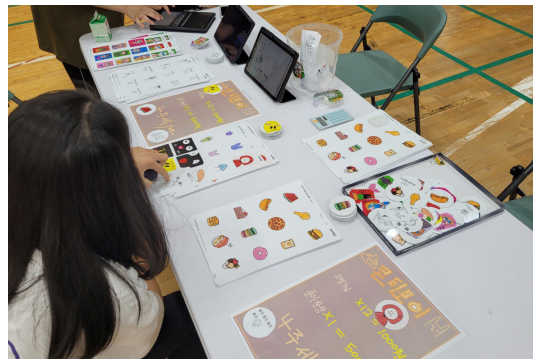
박: 주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1일 1실천이라고 해서 우유팩을 씻어서 버리거나, 잔반을 남기지 않기, 냉난방기 조절하기, 전등 사용 최소화하기 등의 실천을 한다. 환경 관련 책을 보고 소감을 나누거나 실천 방법을 생각하는 활동도 한다.

설: 이곳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지난 어스아워 당시에 기숙사에서 소등에 참여했다.

두 학생에게 '지구'란 무엇인가?

설: 음...제가 평소 등교할 때 차를 타는 것, 불을 켜는 것, 씻는 것, 모든 행동이 어쩔 수 없이 환경 오염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구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박: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지구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지구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구를 더 빨리 훼손할수록 인간도 더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지구와 인간은 공존을 이뤄야 하는 존재이자,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안나현 후원자

좋아하는 배우의 이름으로 '버킷리스트' 이룬 후원자



배우 김성규 씨의 이름으로 후원했다고 들었다. 후원자님께서 배우 김성규와 WWF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평소 소소하게 여러 단체를 후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몽골 여행을 그린 웹툰으로 수익이 생겨 (나에게는) 큰 금액을 의미있게 기부하는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싶었다. 몽골 여행을 갔을 때 사막을 다니던 중 유목민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더 이상 유목을 하지 못하고 도시로 강제 이주를 한다는 설명을 가이드에게 들었다. 그 기억이 나 환경 단체를 찾아보게 됐고, 평소 좋아하는 배우의 이름으로 한다면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해서 김성규 배우의 이름으로 WWF에 기부하게 됐다.

몽골에서의 기억이 강렬했던 것 같다.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지? 일상에서 환경 실천을 하는 게 있다면?

평소 SNS에서 옷 쓰레기나 추석과 같은 명절 선물 쓰레기 등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했다. 또, 요즘 날씨도 그렇고, 이상기후도 그렇고, 언제부터 눈이 안 오기 시작해 '뭔가 요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이상기후를 늦추고 싶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환경이 파괴되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잠기거나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당장 다 할 수 없어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대나무 칫솔을 쓰거나,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거나 하는 실천을 하고 있다. 예전처럼 일회용 플라스틱을 막 쓰고 버리고 살다 보면 '인간이 멸종하기 전에 지구가 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응원하는 배우나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배우 김성규로 된 후원증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보통 팬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제 스스로 번 돈을 김성규 배우 이름으로 후원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평소 김성규 배우도 동물보호 등 기부를 하고 있어서 기부 사실을 팬카페에 공유했더니, 다른 회원분들도 동참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보람이 있었다.

후원자님에게 '지구'란?

지구는 우리의 집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구에 세 들어 사는 인간들이 동물과 자연이라는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며 집을 막 쓰고 있다. 집이 낡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된다. 이왕 사는 것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기부를 했으니, 지구를 지키는 일은 WWF에게 믿고 맡기겠다!

2022년 회계 보고

WWF-Korea의 2022 회계연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속에서도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덕분에 2021년에 이어 지속가능한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후원자님의 도움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명경영을 위한 WWF-Korea의 지속적인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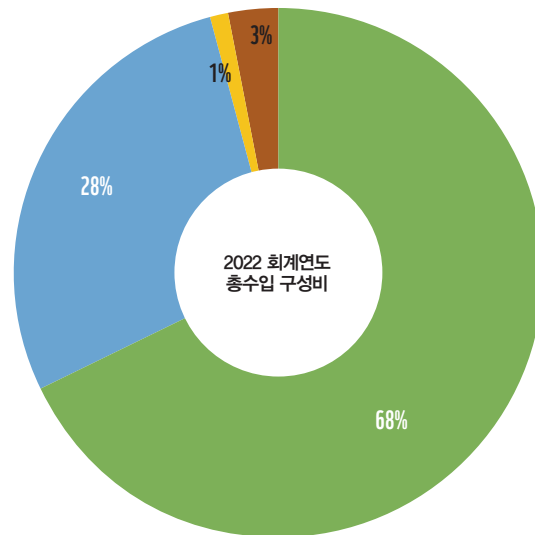
WWF-Korea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금, 사업 운영, 후원금 관리의 과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내용과 예산을 계획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에 수립 예산을 보고합니다. 예산 변경이나 예산에 따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 후원금을 사용하며, 후원 목적에 적합한 사용을 위해 회계 시스템 내에서 용도에 맞는 계정과 증빙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이사회에서 사업 운영 및 지출, 결산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며 회계 전문가를 통해 정기 외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사업 실적, 수입, 지출 내역 및 차기 연도의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결산 내역 등을 이사회와 WWF 국제본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2022 회계연도의 총 수익은 8,453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수입의 구성은 개인 후원금이 가장 큰 비중인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금의 비율은 28%, WWF 네트워크 지원금, 공공기관 지원금, 기타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4%입니다.



- 개인후원자 후원금
- 기업 후원금
- WWF-Network
- 기타 수익
- 공공기관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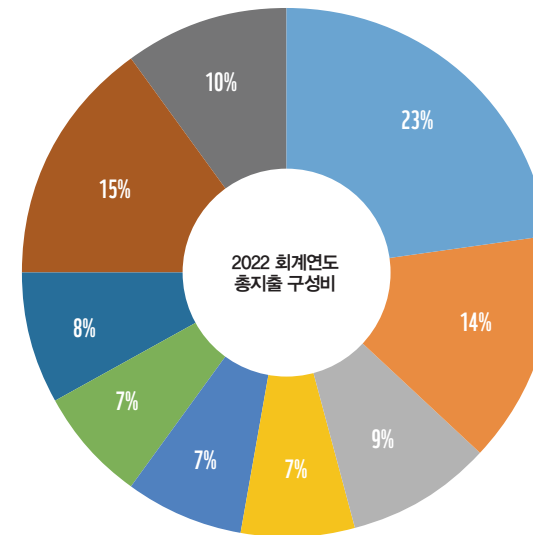
WWF-Korea 감사 시스템

| 외부감사 | 서우회계법인 연 1회 감사 |
|----------------------|---|
| 정부감사 | 환경부, 국세청, 세무서, 점검 및 감사 환경부: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의 보고서 제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의무 공시 세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 공익법인공시 | 국세청 웹사이트 공시 한국세계자연기금 웹사이트 공시 ※ FY22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는 wwf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내부감사 | 연 2회 이상 이사회 감사 |
| WWF International 감사 | 회계연도 마감 후 연 1회 감사 |

지출

2022 회계연도의 총 지출은 5,164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지출 금액의 23%가 자연보전 인식 제고 및 어스아워 캠페인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후원자 모집 및 관리에 15%, 그리고 10%는 운영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총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플라스틱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WWF는 2030년까지 자연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유입을 막는 큰 목표를 가지고, 연평도와 제주도 지역의 해양 플라스틱 수거, 기업들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소비자들 대상 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유엔 플라스틱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결의안 통과를 지지하는 전 세계 220만 명의 시민들과 12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의 서명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에 맞서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자연보전 인식제고 및 어스아워
- 기후보전 프로그램
- 해양보전 프로그램
- 시장변화 프로그램
- 모금비
- 일반관리비
- 담수보전 프로그램
- 멸종위기종보전 프로그램

WWF의 네트워크

WWF-Korea 이사회

이사장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이사

강희철 (법무법인 울촌 변호사)

박은실 (추계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 | 그룹 부회장)

이병욱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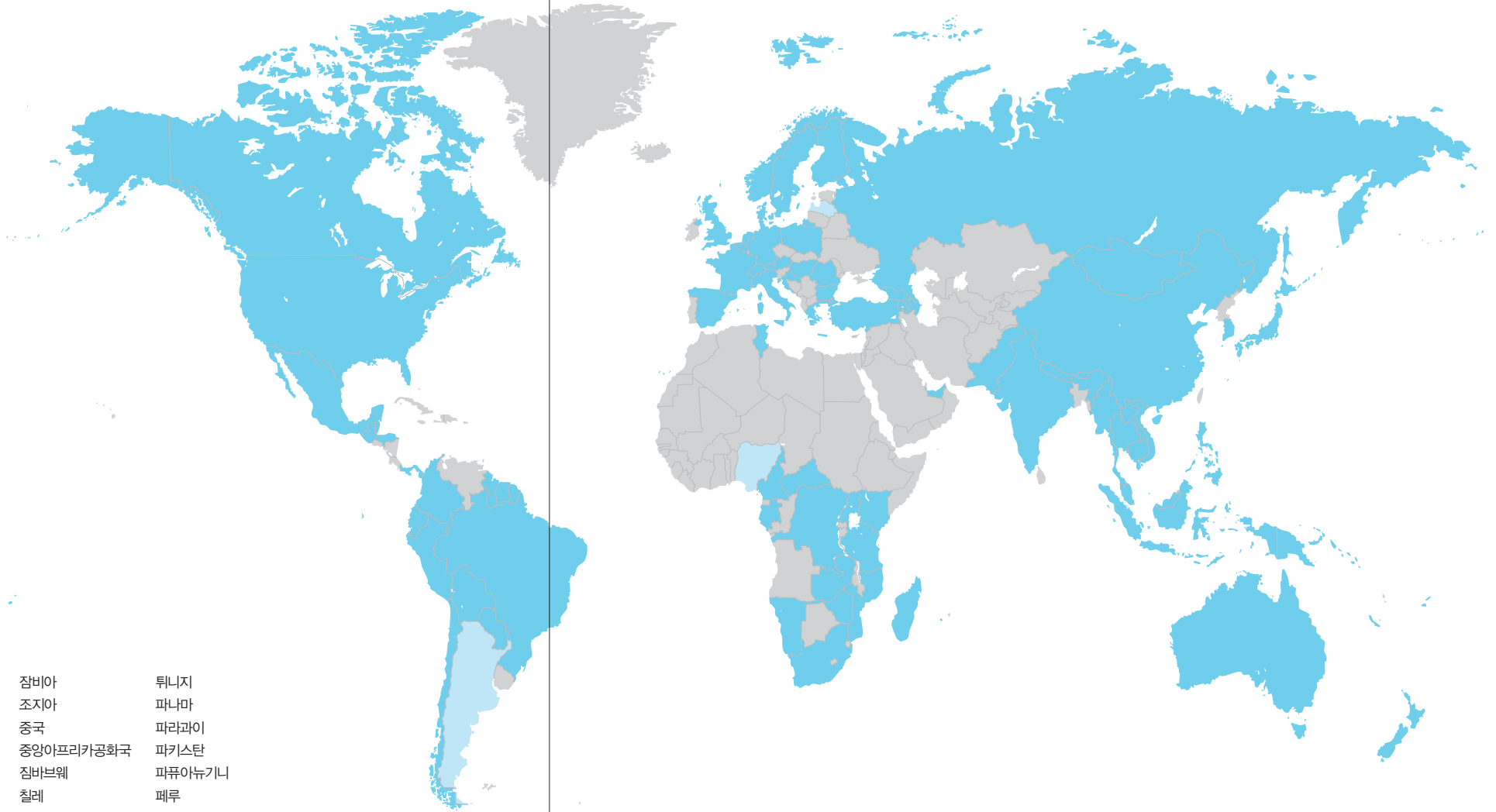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대표 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감사

함중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 | | | | |
|--------|-------|--------|-----------|---------|
| 가봉 | 말레이시아 | 스위스 | 잠비아 | 튀니지 |
| 가이아나 | 멕시코 | 스페인 | 조지아 | 파나마 |
| 과테말라 | 모로코 | 슬로바키아 | 중국 | 파라과이 |
| 그리스 | 모잠비크 | 싱가포르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파키스탄 |
| 나미비아 | 몽골 | 아랍에미리트 | 짐바브웨 | 파푸아뉴기니 |
| 남아프리카 | 미국 | 아르메니아 | 칠레 | 페루 |
| 네덜란드 | 미얀마 | 아제르바이잔 | 카메룬 | 포르투갈 |
| 네팔 | 베트남 | 에콰도르 | 캄보디아 | 폴란드 |
| 노르웨이 | 벨기에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
| 뉴질랜드 | 벨리즈 | 오스트리아 | 캐냐 | 프랑스령기아나 |
| 대한민국 | 볼리비아 | 온두라스 | 콜롬비아 | 피지 |
| 덴마크 | 부탄 | 우간다 | 콩고민주공화국 | 핀란드 |
| 독일 | 불가리아 | 우크라이나 | 쿠바 | 필리핀 |
| 라오스 | 브라질 | 이탈리아 | 크로아티아 | 헝가리 |
| 러시아 | 솔로몬제도 | 인도 | 탄자니아 | 호주 |
| 루마니아 | 수리남 | 인도네시아 | 태국 | 홍콩 |
| 마다가스카르 | 스웨덴 | 일본 | 터키 | |

WWF 제휴기관

-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 (나이지리아)

■ WWF Offices
■ WWF Associates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여정에 WWF와 함께해주세요.



© naturepl.com / Visuals Unlimited / WWF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2022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전 World Wildlife Fund)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